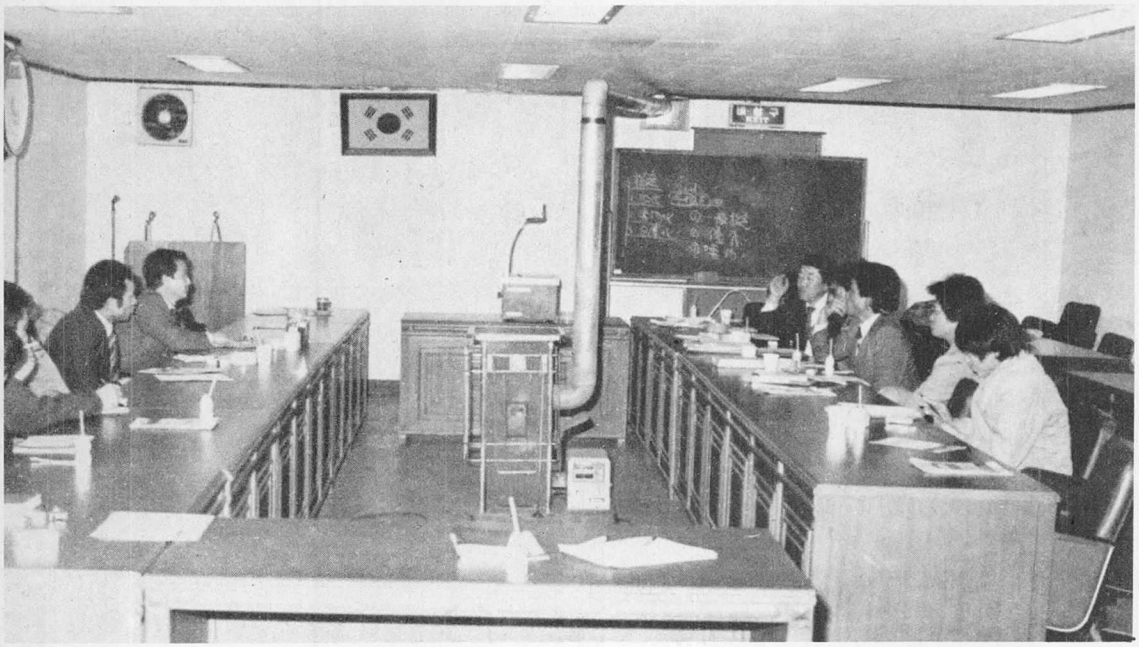


돼지전염성위장염 특집좌담회

돈육수급에 영향을 미칠것인가

본 좌담회는 돼지과잉생산 시점에서 최근 경기·전남 일부지역에서 발생되어 전국으로 확산 전파되고 있는 돼지전염성 위장염이 과연 82년도의 돈콜레라처럼 돈육수급에 영향을 미칠것인지를 예측하고자 각 농장 실무진을 한자리에 모아 특집좌담회를 마련하였다. 일반적으로 TGE라고 불리고 있는 이병은 전염성이 매우 높고 생후 5일이내의 젖을 먹고 있는 어린 돼지에 감염하면 심한 설사와 구토를 하게되고 탈수증이 심하여 100% 사망한다. 보균돼지의 도입, 차량, 운전자, 방문객 등은 본병 전파의 원인이며 주로 경구적 혹은 호흡기 감염을 한다. 비육돈에서는 발병율은 높지만 다른 질병과 혼합 감염을 하였을 경우 이외에는 폐사하지 않는것이 보통이다. 또 임신한 돼지가 분만직전에 감염되면 새끼돼지는 분만 2~3일내에 죽게 된다. 바이러스가 병원체인 이 질병은 치료효과는 거의없고 예방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약독화 조직배양 백신을 분만 5주전에 2㎖, 분만 2주전에 2㎖를 근육 또는 피하 주사하여야 한다.

—편집자주—

때 : 1984년 2월 17일 곳 : 축산회관 회의실 (가나다순)
참석 : 강신웅(상천농원) 김호신(대오농축) 손길호(선진원종) 윤영호(대주산업〈주〉) 이경록(덕원농산) 이동은(구일산업) 전병성(〈주〉삼양사) 조계원(평택농장) 한백용(본회전무)

한백용전무

이동은

손길호

한백용－돼지전염성위장염이 돈육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된 현재 특집좌담회를 마련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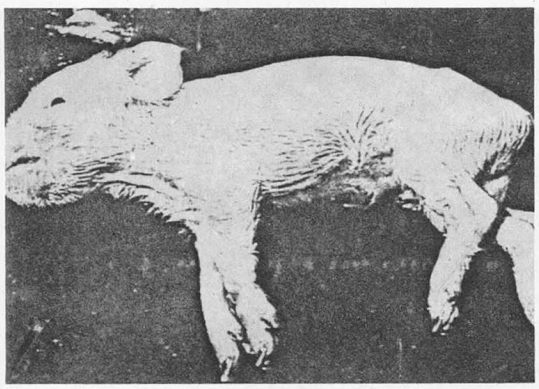
우선 이동은이사님께서 나주·금성·영광지역의 중소규모농장의 돼지전염성위장염 발생상황과 피해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이동은－2월초 농수산부 차관보회의실에서 모돈감축에 대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석상에서 돼지전염성위장염 발생에 대한 언급이 있었읍니다. 일부 기업농장에서 수백두의 돼지가 이 질병으로 폐사되어 농수산부에서 농장 조사를 나가 결국 발생경보 1호를 널리 알렸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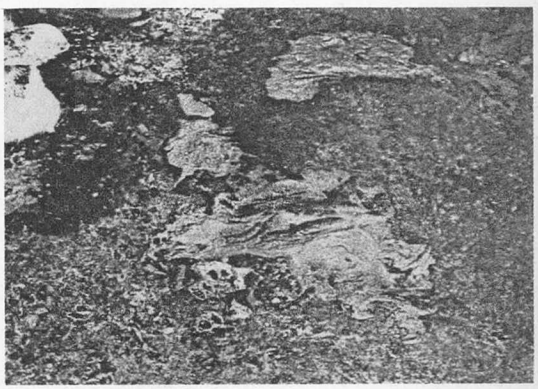
나주지역에 이 질병이 많이 발생된 것은사실이지만 정확한 폐사두수는 알길이 없읍니다. 경기도 소재 큰 농장에서 예방 접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다 발생되어 경미한 상태로 지나간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불황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의 관심이 쏠려있읍니다만 2월 현재의 시점에서 4～5월 후에는 사육두수가 줄어들어 돼지가격이 좋아질것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볼때에도 돼지전염성위장염이 돼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손길호－경기지역에서는 방역을 소홀히 한 농장은 이 질병이 많이 발생 된 것으로 알고 있고, 4～5개월 후 경기가 좋아질 전망



감염폐사된 자돈



돈사바닥에 깔려 있는 회황색의 설사변

김호신

이경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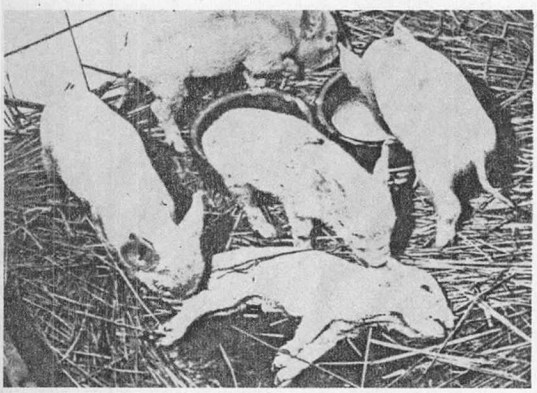
조계원

이라고 봅니다. '79년도에 이 질병의 피해가 컸는데 현재 폐사율이 크지 않으므로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유자돈은 100% 사망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성장율에 영향을 끼치므로 돈육수급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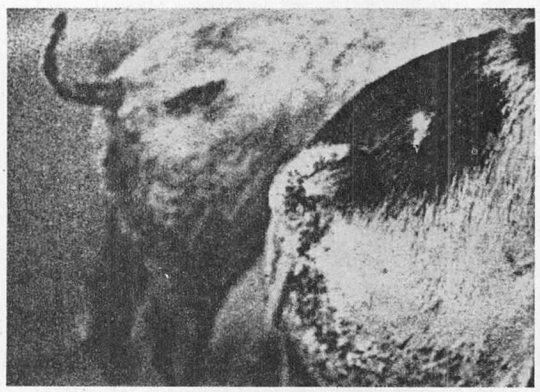
김호신—이 질병 발생농장 실무자와 접촉해 본 결과 종전에 나타났던 것 하고는 양상이 틀린것 같읍니다. 60kg의 비육돈에 먼저 발생하여 자돈과 포유모돈으로 퍼지고 있는데, 탈수로 인하여 성장율에는 영향을 끼치지마는, 폐사로 인하여 돈육수급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100~1,000두 규모의 농장에서 발생빈도가 많으나 대규모 농장에서는 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백용—'83년 겨울부터 금년 3월까지이 질병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을 할 것을 홍보하고 발생경보까지 내렸읍니다마는 돼지전염성위장염 예방약 수급이 부진하고 예방접종을 안한 농장이 대부분이었읍니다. 국내백신이 개발되어 외국산 예방약보다 가격이 1/5이나 저렴하여 공급이 원활한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등한시하는데 문제가 있읍니다.

이 질병이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홍성·당진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고 경기도 일원의 발생농장에서도 발병된 포유자돈은 거의 폐사된 것으로



생독백신접종 모돈의 자돈(좌우양쪽)과
미접종 모돈의 자돈(설사하며 죽음)



감염된 비육돈, 악취의 수양성 설사가 특징

윤영호

강신웅

전병성

알고 있읍니다. 김포·강화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경록—김포·강화지역에 피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지마는 TGE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생후 재발하고 감염된 포유자돈이 100% 폐사하지도 않으며 일부 감염된 농장에서는 피해가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원—평택·안성 인근지역에는 TGE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없읍니다. 4—5개월 후에는 돈육 수급이 원활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정설로 굳혀지고 있는 것 같읍니다.

윤영호—천안·고향·김포지역에 TGE가 많이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 농장에서도 피해를 보았읍니다마는 4월 중순 내지는 6월 초 경에 돼지고기의 절대량이 부족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강신웅—대부분 100두 미만의 소규모농장에서 발생하여 다수 폐사된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돼지가격도 좋지 않은데 예방접종은 해서 무엇하느냐는 인식인것 같읍니다. 맨 처음 비육돈에서 발생하여 감염된 돼지의 80%가 10일정도 설사하고 이어 모돈과 자돈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자돈은 100%, 50kg의 육성돈은 30% 폐사하고 있읍니다만 확실하게 TGE인지는 확증이 없읍니다.

한백용—대규모 농장에서도 수천두가 발생하여 폐사되었다는 소문이 있읍니다. TGE가 발생하면 보유 어미돼지 수 만큼 폐사된다는 것이 정설인데 밝혀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병돈에 대한 제도적 보상제도가 없기때문이지만 얼마라도 건지겠다는 생각에서 병돈을 출하하기때문에 전파의 위험이 큽니다.

강신웅—싸리비하러 산에 갔다가 일반농가에서 병든 자돈을 사후처리한 장면을 본 기회가 있었는데, 불에 태우긴했지만 완전히 소각되지 않고 겉만 끄시른 상태로 있다가 눈이 녹으면서 우리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병돈의 사후관리가 미비하기 때문에 개가 물고 다녀 전파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전병성—약품 도·소매업자에 의하면 현재 TGE 예방액이 날개돗힌듯 팔린다고 합니다. 마장동에 돼지를 내는 사람들에 의하면 4~5월에 돼지수급에 영향을 줄것이라고 합니다.